

야쿠시도

야쿠시도(藥師堂)는 엔교지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. 1978년에 건물의 대규모 개보수가 이루어졌을 때, 나라 시대(710~794)의 유물이 내부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이 유물들의 존재는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(910~1007)가 966년에 쇼샤잔 산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 장소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 세기에 걸쳐 많은 개축과 증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건물의 건축사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럼에도 큰 중심 기둥과 장식적인 지붕의 들보는 이 건물이 다이부쓰요라고 하는 대륙의 사원 건축 양식의 초기 형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

이 불당은 '치유의 불상' 또는 '의술의 달인'으로 알려져 있는 약사여래를 안치하고 있어서 야쿠시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약사여래는 6세기에 불교가 전해진 뒤 승배의 대상이 된 최초의 부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, 건강과 치유의 부처로서 조정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. 약사여래 승배는 8세기에 불교가 일반 서민 계급의 인기를 얻어 많은 사원이 약사여래상을 모실 정도로 널리 퍼졌습니다. 대부분의 경우 약사여래는 약병을 왼손에 든 모습으로 표현됩니다. 엔교지 절 야쿠시도의 약사여래상은 무로마치 시대(1336~1573)에 제작된 것으로서 현재는 엔교지 절의 지키도(食堂) 2층에 전시하고 있습니다.